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19년 4월 25일(목) 조간부터 가능
[인터넷 기사] 2019년 4월 24일(수) 12:00이후 가능

[연구관련]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4-287-6313, yeesy@kli.re.kr)
담 당 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044-287-6407, shin@kli.re.kr)

[보도지원]
안준철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 담당
(044-287-6022, jcahn@kli.re.kr)

배포일시 2019년 4월 24일(수) 09:00

5G 상용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 5G 상용화는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에 최소 21.8만 명,
최대 3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 -

□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1호 (통권 제1호)』 발간을 통해 5G 상용화를 통한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21.8만 명~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정부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5G+ 전략산업에서 2026년 생산 180조 원 달성, 고용 60만 명(2026년까지) 창출을 목표로 제시

* 분석기간과 분석방법이 달라 정부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 적극적인 정책 전개를 통해 정부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5G 상용화의 고용효과는 1차 효과(산업 내 효과) 4.3~7.8만 명, 2차 효과(기술융합효과) 21.8~33만 명으로 예측

* 1차 효과(산업 내 효과: 통신산업의 설비투자 확산 → 생산증대 및 고용변화)는 5G 기술함수와 생산·고용함수를 추정하고 시나리오 분석(5G 상용화가 4G 기술확산 기간보다 최대 3.3배로 확대)

* 2차 효과(기술융합 효과: 5G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에서 5G 이동통신기술 사용자(User) 증대 →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 → 관련 산업의 생산 증대 및 고용변화)는 5G 기술에 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산업의 파급고용효과 도출

□ 5G 상용화는 5G 이동통신기술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면서 고용의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효과를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수립이 필요

- 첫째, 5G 관련 산업 생태계의 원활한 성장(수요측면)과 관련 인력의 진출(공급측면)이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5G 환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폭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 둘째, 기술융합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하여 5G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융합, 5G 상용화의 활용 및 응용 능력의 확대가 필요

* 5G 상용화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5G 기술을 융합하는 정도에 따라 고용창출효과는 변동가능

- 셋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 구축

* 5G 상용화에 중소기업이 협력사로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5G 기술 R&D에 중소기업 지원, R&D 관련 신규 채용 조건으로 R&D를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 설계 등이 필요, 재직자 직능향상을 위한 사내 교육훈련 지원 참여확대(고용노동부 실시 사내 훈련 프로그램의 사업주 지원사업 참여 확대)

- 넷째, 청년, 여성,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

* 5G 기술 기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여성, 장년층 노동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업훈련이나 직무전환 교육훈련을 제공하도록 하고, 5G 상용화의 고용효과는 청년층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 적합한 청년층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기간행물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1호(통권 제1호) 1부. 끝.